



개관 앞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둘러봤더니

“DJ기념관 바닥 염분꽃 벌써 부실”

건축 업계 “염분 남은 바다모래 사용 시 발생하는 현상”
준공 후 바닥 보강공사 시행 ... 먼지 함께 날아온 소금 해명도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이 오는 15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물 앞에 5대양을 상징하는 울림돛 바닥에 백화현상으로 의심되는 흰색 가루가 나타나 철거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사 취재진은 지난 8일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목포시 일재호 관광사업과장과 김진호 경관조명과장이 함께 흰색 가루를 확인했고 맛을 본 결과, 염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염분이 섞인 모래를 사용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일재호 과장은 “염분은 바닷가와 가깝기 때문에 바람과 함께 날린 먼지 때문”이라며 “레미콘에 대한 성분을 실험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파란 페인트칠 한 부분 아래는 대리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염분이 올라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기념관에 대한 준공 검사를 마친 시는 지난 7일 왼쪽 울림돛에 칠한 파란색 페인트를 벗겨내고 다시 덧칠을 했다.

이에 대해 일재호 과장은 “염분과는 상관이 없고 공사의

한 과정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서남권지역에서 유통되는 바다 모래 대부분이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채 유통된다는 지적을 받아 기념관에 사용된 모래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다모래의 염분농도는 평균 1% 대로 건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치인 0.04%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공업용수 등을 이용, 세척 작업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제염시설을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다.

모래 판매업자들도 레미콘이나 일반 건축업자에게 건축용 모래를 팔면서 아예 세척을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엉성한 정도로만 세척한 후 염분농도를 확인도 않고 넘기고 있는 실정에서 건축현장에서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약 실제로 기념관 공사에서 염분이 남은 바다모래가 사용됐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관계자는 “염분이 아직 다 빠지지 않은 바다모래로 공사를 시행했을 때 시공 후에 빗물에 녹아내린 염분이 벽면을 타고 내려면서 하얗게 굳는 현



지난 7일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앞 원형 울림돛 바닥을 긁어 내며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위). 지난 8일 울림돛 오른쪽에 나타난 염분 가루(아래).



상”이라며 “심한 경우에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분리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념관의 연못 바닥에 염분이 잘 보이는 이유는 대리석이나 노출콘크리트와 달리 파란색으로 눈에 잘 띈기 때문”이라며 “만약 전체 건물에 같은 모래가 들어갔다면 건물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념관에 들어간 레미콘

은 관급자재로 조달청 입찰로 전남남부레미콘협동조합이 낙찰돼 3억9천900만여 원에 계약했다. 레미콘 시공은 이 조합에 소속된 6개 레미콘 회사가 균등하게 나눠 투입됐다. / 조종수기자

목포 당정협의회, 국·도비 예산 확보 주력

1,988억 요청에 1,678억 반영



박지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종득 목포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손을 잡고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나선다.

지난 8일 오전 7시 30분 신안 비치호텔에서 열린 6월 당정협의회 회의 주 내용은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것.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SOC 사업에 대한 예산을 50~70% 까지 삭감하면서 낙후지역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가고 있다”며 “삭감의 부당성을 알리고 장관 등과 면담을 통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목포대 의과대 신설의 경우 운영결과 의사 수가 필요하지 만 의사협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며 “이번 기회에 목포에 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목포시가 전남도에 요청한 내년도 국·도비는 총 65건에 1,988억 원으로 이중 52건에 1,678억 원만 반영되고 13건 310억 원은 미반영됐다. 박 의원은 “20일까지는 무조건 반영시켜야 한다”며 “도의원들도 이삭줍기하는 심정으로 예산 확보에 힘쓰라”고 주문했다. 정종득 목포시장도 “일부 언론에서 산단 분양이 비싸서 힘들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세라믹산단과 대양산단은 목포 산업의 100년을 책임질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재 계속되는 불황에 조선산업만 보

고 있을 수는 없고 그 동안의 문제점을 서로 보완해가며 분양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종범 시의회 의장은 “6월은 올해 사업의 중간점검을 하는 시기”라며 “문제점은 개선하고 협조할 부분은 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남도 제1회 추경 예산에 9건 25억9천만원 반영을 요구했지만 3건에 대해 9억4천만원 만 반영됐다. / 조종수기자

“시 건설관련 조례 꼼수없게 제대로”

보류된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조례 신중한 검토 필요

목포시의회 307회 임시회에서 상정됐다가 보류된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도급 문제 등 타 조례와 겹치는 문제로 보류됐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의회 A의원의 형제들과 친인척이 목포시에서 무려 2년여 동안 52건의 입찰·수익계약을 맺으면서 조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

노경운 의원이 대표로 백동규 의원도 최일 정영수 성해리 서미화 최기동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

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조례에는 지역건설산업은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으로 목포에 소재지를 두고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포함시켰다.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에 대한 내용이 담긴 8조에는 1항에 시장은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또 2항에는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생산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

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 내 건설장비를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업계에서는 시와 지역 특정 건설업체에 밀어주거나 담합의 경우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업체도 지역에서 1년, 5년, 10년 등급을 두고 지역에서 봉사나 사회환원을 많이 하는 업체에 추가 점수를 주는 방법이나 또 모든 업체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조항도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종수기자

진보정의당 전남도당 창당, 지방선거 체제로

11일 강용주 윤소하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진보정의당 전남도당이 창당대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진보정의당 전남도당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강용주, 윤소하)는 지난 11일 저녁 7시,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더 가까이, 더 아래로’ ‘모

두를 위한 복지국가,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가치를 내걸고 진행되는 이번 창당대회에서 강용주, 윤소하 위원장을 전남도당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최호선 최고위원, 이정미 대변인)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급 기관장들이 참석해 창당을 축하했다.

전남도당은 지난해 12월 목포시위원회 창당을 시작으로 1월 영암군위원회, 그리고 지난 6월 7일 여수시위원회를 창당했다. 도당 창당대회 이후 무인을 비롯한 순천 등 전남 시군 지역위원회 창당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당은 내적으로 2014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가맹점 상인들의 권리 찾기 활동과 600만 중소상인살리기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활동 등 민생 정치활동에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 조종수기자

축제 음식부스 개선한다

티켓 판촉 활동 금지 등

본보 보도이후 지난 5월 목포 당정협의회에서 다루졌던 유달산꽃 축제 관련 음식부스 운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 김준철 기획관리국장은 지난 8일 열린 6월 당정협의회에서 음식종류가 차별성이 없으니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특산 음식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토음식부스 운영시 문제가 발생했던 티켓 판촉 활동도 전면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조종수기자

목포 민주당, 고통받는 ‘을’ 목소리에 경청

4일 간담회, 의견들 당 정책에 반영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가 을(乙)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불평등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갑을관계’에서 고통받는 ‘을’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날 지역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인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 당의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갑과 을의 관계는 노예계약과 다를 없으며 가진 자의 횡포로 시장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다”고 말하며, 목포시의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앞장서고, 시와 시의회,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목포시의회 배종범 의장은 “전통시장, 프랜차이즈 업체 등 ‘을’이라 대표되는 지역 상인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서 실질적인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중앙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에서부터 실질적인 현장 활동 및 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 조종수기자

목포연합장로회 6·25 상가구국예배 및 어르신 건강세미나

신록의 계절 6월을 맞이하여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목포연합장로회에서는 6·25 전쟁 상가구국예배를 지역 복음화와 성시화의 일환으로

제18회기 역점사업인 생활건강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초청하오니 부부동반 참석하시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목포연합장로회 회장



천길호 장로
(새목포제일교회)

초청합니다

일시: 2013년6월25일(화)오전11시

장소: 목포상그리아호텔8층

주최: 목포연합장로회

후원: 의료법인 새한의의료재단, 새한노인전문병원, 목포성심요양병원



목포연합장로회

목포시 텃골로5 (석현동) 새목포제일교회 다목적관2층 TEL.061)283-6020